

1st Anniversary Festival

Dresdner
Philharmonie

Mischa Maisky

미샤 마이스키 &

드레스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www.artgy.or.kr

Seoul Philharmonic Series 1

정명훈 & 서울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2008
8.13 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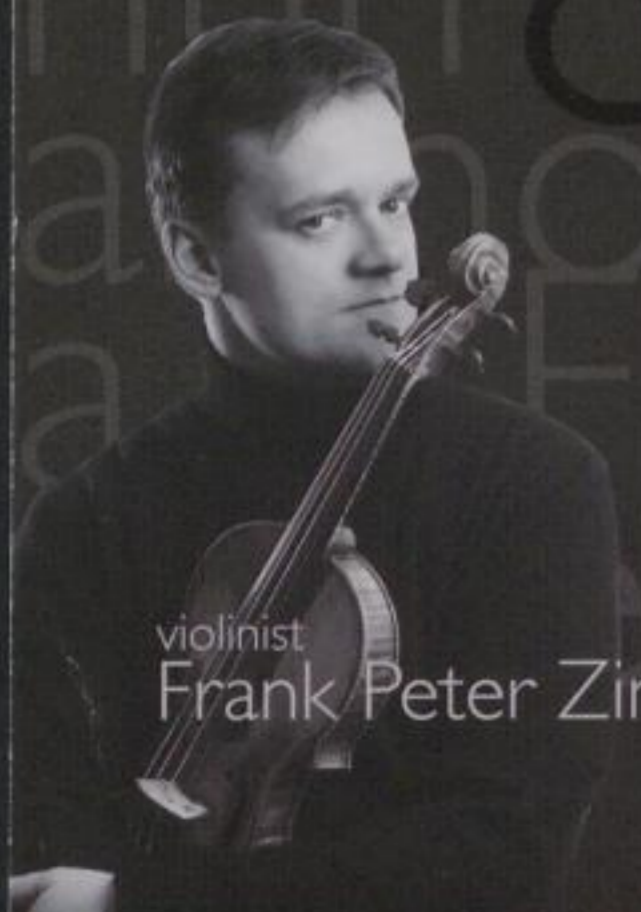
8pm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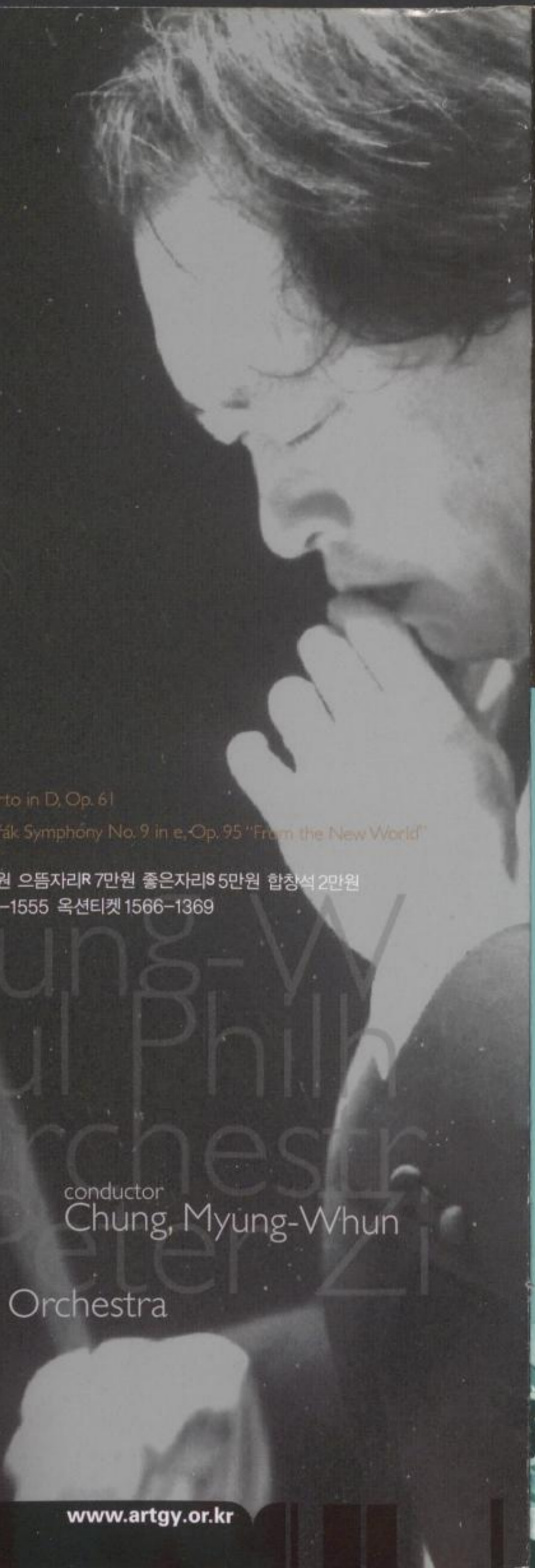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61 Beethoven Violin Concerto in D, Op. 61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e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Dvořák Symphóny No. 9 in e, Op. 95 "From the New World"

주최  고양문화재단 후원  고양시 입장료 모시는자리VIP9만원 으뜸자리R 7만원 좋은자리S 5만원 합창석 2만원
문의 및 예매 고양문화재단 1577-7766 티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옥션티켓 1566-1369



violinist
Frank Peter Zimmermann



conductor
Chung, Myung-Whun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www.artgy.or.kr

1st ARAMNURI Anniversary Festival

첼로 거장과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 전통의 만남

Dresdner Philharmonie

Mischa Maisky

미샤 마이스키 & 드레스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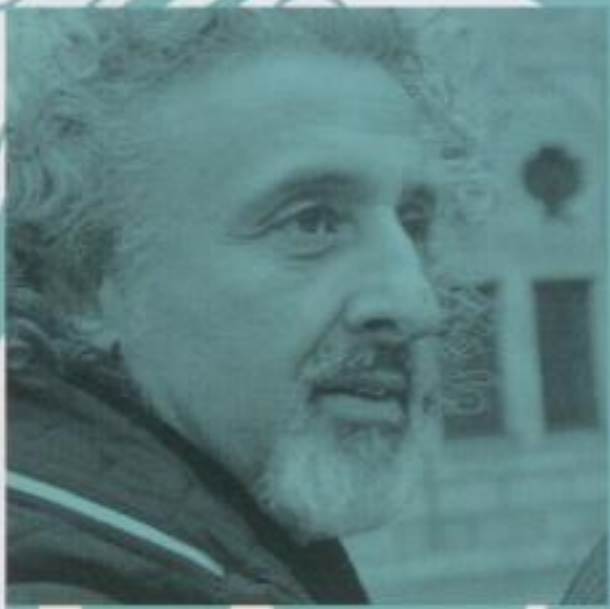
지휘 |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 Rafael Frühbeck de Burgos

2008.6.20(금) 오후 8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주최 고양문화재단 후원 고양시





M I S C H A
M A I S K Y



Dresdner Philharmonie



RAFAEL FRÜHBECK DE BURGOS

02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돋움

2007년 아람누리 개관과 함께 고양시는 국제적 수준의 명품 공연장을 갖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는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꿈꾸어 왔던 문화예술 도시로의 초석을 다진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는 풍부한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로스트 & 이정원 초청공연>으로 시작된 고양아람누리 개관 1주년 기념 예술제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오케스트라 초청 시리즈의 하나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 드레스덴 필하모니 초청공연>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내한 공연을 통해 깊이 있는 연주를 들려주며 한국 팬들을 사로잡은 첼로의 거장 미샤 마이스키를 고양아람누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세계적인 영화감독인 장이모우 연출의 중국국립중앙발레단<홍등>, 세계적인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내한공연>,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등 최고 수준들의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보이는 공연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양아람누리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장으로서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문화재단 이사장 강 현 석

강 현 석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와 드레스덴 전통의 만남!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130여 년 전통의 드레스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의 내한공연이 고양아람누리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의 지휘봉은 현대적인 해석과 젊은 지휘자 선호의 최근 경향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20세기적 지휘 스타일을 고수하는 스페인의 명장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그스가 잡는다. 협연자는 로스트로포비치 영면 이후 요요마와 더불어 세계 첼로계를 양분하고 있는 미샤 마이스키로, 60세를 맞이해 누구보다 애정을 가져 온 한국에서 드보르자크 첼로협주곡의 진수를 선사한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색조를 지닌 드레스덴 필의 향취, 일흔 다섯의 나이로 가장 원숙한 형태의 지휘를 선보이고 있는 프뤼벡, 거장 첼리스트시대의 마지막 주자 마이스키의 음악혼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음악 그 자체를 즐기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지휘 |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
첼로 | 미샤 마이스키
연주 | 드레스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Rafael Frühbeck de Burgos

Dresdner
Philharmonie

Mischa Maisky



Program

베버 | <오베론> 서곡
Weber | Overture 'Oberon' J.306

드보르자크 | 첼로협주곡 작품 104
Dvořák | Cello Concerto Op.104

I. Allegro
II. Adagio ma non troppo
III. Allegro moderato

Intermission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운명> 작품 67
Beethoven | Symphony No.5 Op.67

I. Allegro con brio
II. Andante con moto
III. Allegro
IV. Allegro

*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Mischa Maisky & Dresdner Philharmonie 05

로스트로포비치를 가슴 속에 묻고,
이 시대 남은 마지막 첼로의 장인

Mischka

06



Cellist



미샤 마이스키
Mischa Maisky, Cellist

라트비아 공화국의 수도 리가에서 태어난 미샤 마이스키는 리가 음악원에서 처음 첼로를 배웠다. 레닌그라드 음악원의 부속 음악학교, 모스크바 음악원을 마치고 이 시대 최고의 두 거장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에게 모두 가르침을 받은 유일한 첼리스트로 인정받는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어 2년간의 옥중생활을 해야 했고 1972년, 24세 때 출국허가가 내려져 이스라엘로 이주하면서부터 자유를 찾게 된다. 피아니스트 루돌프 제르킨이 말보로 음악제에 초청했고 피츠버그 심포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서방에 그의 이름을 알렸다.

마이스키의 강점은 윤기 있는 음색으로, 지나치게 감성과 기교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그의 연주는 훌륭한 성악가의 절창을 연상시키는 매력을 지녔다.

특히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서정적인 연주는 바흐 작품의 원류에 취해있던 애호가들에게 큰 파문을 안겨 주었고, 그의 음반은 명반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늘하늘한 소재와 원단의 일본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를 연미복으로 입는 미샤 마이스키 특유의 무대 의상을 쇼맨십으로 연결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마이스키는 단지 연주하기에 편한 실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20세기 첼로의 절대 거장들이 모두 사라진 이 시대, 음악은 종교라는 신념으로 음악을 대하는 미샤 마이스키의 가치는 이번 연주회에서 더욱 빛날 것이다.

Maisky

Mischa Maisky & Dresdner Philharmonie 07

지휘 |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

Rafael Frühbeck de Burgos, Conductor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는 1933년 9월 15일 스페인 부르고스에서 독일인 부친과 스페인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름의 '데 부르고스'는 부르고스 출신 사람이라는 뜻이며 줄여서 부를 경우 '프뤼벡'으로 칭한다.

빌바오와 마드리드 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 작곡을 배웠고 독일 뮌헨 고등음악학교 지휘과로 유학을 떠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1959년 빌바오 심포니 상임 지휘자를 거쳐 1962년 서른의 나이로 스페인 국립관현악단 상임지휘자에 올랐고 1975년 가을에는 몬트리올 심포니 음악 감독직에 오르면서 볼프강 지발리시, 주빈 메타 등과 함께 1970년대 지휘계의 신성으로 각광 받았다.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슈타츠 오페라 음악감독을 역임했고 오스트리아 빈 심포니 수석지휘자를 지냈으며 유럽과 미국 굴지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지휘로 명성을 드높였다. 1996년 11월 빈 심포니와 함께 내한해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등 빈 심포니의 장기를 여실히 보인바 있다.

일찍부터 라벨 관현악 작품에 일가를 이뤘고 파야 관현악 곡집, 멘델스존 〈엘리아〉, 모차르트 〈레퀴엠〉,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비제 〈카르멘〉 음반은 20세기 오케스트라의 자취를 그대로 담은 명반으로 인정받고 있다. 줄리아니 〈기타 협주곡〉, 로드리고 〈아랑페스 협주곡〉,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데 로스 앙헬레스와의 〈스페인 명가집(名歌集)〉 등 스페인 음악 연주에 있어서 프뤼벡이 보인 권위 있는 해석과 절도 있는 리듬감은 후세 젊은 지휘자들이 좀처럼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다. 현재는 이탈리아 RAI 국립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와 드레스덴·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Rafael Frühbeck de Burgos



고집스러운 정통에 대한 집념,
사라져 가는 20세기적 지휘 스타일의 표본

Dresdner Philharmonie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국립극장)와 더불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로 1870년에 창단되었다.

처음에는 공연장의 이름을 따서 게베르베 오케스트라로 불리다가 1915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문 오케스트라답게 수많은 거장들이 이 악단과 함께 했다.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자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자작 자연했고 1934년부터 파울 반 캠펜, 칼 슈리히트가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1945년 이후 쿠르트 마주어, 귄터 헤르비히, 헤르베르트 케겔, 미셸 플라송 같은 정통 실력파 거장들이 음악감독으로 명명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현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마렉 야노프스키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스페인의 명장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가 2004-5 시즌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장 쿠르트 마주어 역시 드레스덴 필하모니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여 현재 계관지휘자(Laureate Conductor)로 재임하고 있다.

음반은 주로 베를린 클래식(Berlin Classics)에 많은데, 특히 헤르베르트 케겔이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 파울 반 캠펜 지휘, 빌헬름 켐프 피아노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 23(DG), 루돌프 마우어스베르거가 지휘하고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과 함께한 바흐 칸타타 등은 불후의 명반으로 꼽힌다.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공연장으로 유명한 쿨투어팔라스트(문화회관)에서 연 80회 이상의 연주를 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시민의 자랑거리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화려함을 가린 깊은 색조,
서유럽이 모방할 수 없는
육중한 동독 관현악의 품격



Mischa Maisky & Dresdner Philharmonie 09

드보르자크

첼로협주곡 작품 104

Dvořák | Cello Concerto Op.104

죽음을 5개월 앞둔 브람스가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을 듣고서 "이런 첼로 협주곡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는 왜 생각하지 못 했을까. 만약 알았다면 나도 첼로 협주곡을 작곡하는 건데..."라고 했던 유명한 탄식의 말처럼 말로, 생상스 등 동시대 작곡가들의 곡들은 물론 고금의 첼로 협주곡들을 통틀어서도 기교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드보르자크의 협주곡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사실 많은 작곡가들이 낯선 곳에 대한 여행이나 타지에서 생활을 통해 종종 영감을 얻어 기존 곡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낸 예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드보르자크의 경우처럼 풍성한 결실을 이끌어 낸 작곡가는 많지 않으며, 첼로 협주곡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수많은 작품으로 이미 널리 유명해진 드보르자크는 1892년(51세)부터 뉴욕 국민음악원(American National Conservatory of Music in New York) 초대원장으로 초빙되어 미국에 체류하게 된다. 이후 약 3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통하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아메리카>를 포함한 일련의 현악사중주들, 그리고 이 첼로 협주곡 등 명작들이 태어나게 된다. 당연히 드보르자크가 미국에 가지 않았다면 이 작품들의 탄생도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드보르자크의 미국 시절 작품들에는 이국땅의 낯선 풍경,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 조국의 땅내음에 대한 향수 등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 첼로 협주곡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실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작곡할 당시만 해도 처음 접하는 신대륙 아메리카의 신선한 정취와 거기에 살고 있는 흑인과 인디언들의 민속 음악에 생생한 매력을 느꼈고 그 요소요소들을 작품 속에 과감하게 담아내었다. 그러나 미국, 그것도 기계문명의 대도시 뉴욕에서의 생활은 드보르자크에게 소박한 보헤미아 전원 생활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일으켰고 결국 그는 1894년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을 프라하와 비소카의 별장에서 보내게 된다. 이 작품은 미국 생활의 마지막에 작곡된 것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인 11월 8일 뉴욕에서 작곡에 착수, 이듬해 조국 보헤미아로 귀국한 이후인 1895년 2월 9일 프라하에서 완성되어 동향의 첼리스트인 하누스 비한(Hanus Wihan)에게 헌정되었다. (비한과는 드보르자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보헤미아 지방으로 같이 연주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비한에 대한 드보르자크의 큰 '선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악보를 받은 후 정성스레 쓴 비한의 카덴차를 드보르자크가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초연은 1896년 3월 19일 런던 필하모니아 협회의 연주회에서 드보르자크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 첼로 독주는 당시 유명한 첼리스트였던 레오 스텐(Leo Stern)이 맡았으며 연주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비한은 1899년 빌렘 멩겔베르크의 지휘 아래 헤이그에서 이 협주곡을 처음 연주했으며 이후에 물론 많이 연주를 가졌다. 이 곡에는 드보르자크가 사랑했던 요제파 체르마코바(Josefa Čermáková)에 대한 추억도 들어있는데, 작곡 당시 체르마코바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녀가 좋아하던 자신의 가곡 선율을 2악장에 삽입하기도 하였다. 안타깝게도 1895년 5월 그녀는 세상을 떠나는데 슬픔에 빠진 드보르자크는 초연이 있은 후에 프라하에서 마지막 4마디를 지우고 60마디를 덧붙이는 등 곡을 개작하기도 했다.

이 곡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그 짙은 민족적 정서에 있다. 드보르자크가 평생토록 애정을 보인 보헤미아의 민속음악은 미국 인디언의 민속음악이나 흑인 영가와 리듬이나 선율 면에 있어 유사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긴밀하게 융합하여 작품에 자연스럽게 흘러 넣었지만 드보르자크는 결코 이 두 지역의 선율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창작한 선율을 사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곡은 연주가 무척 까다롭기도 한데 이는 보헤미아적인 정열과 미국의 민요, 인디언과 흑인 음악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첼리스트는 비르투오조적인 연주를 펼쳐야 하며, 오케스트라는 섬세한 민족적 색채와 웅장한 합주를 조화롭게 이끌어 내야하기 때문이다. 고전적 협주곡과는 달리 독주부와 오케스트라가 대립보다는 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교향악적인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2관 편성을 고수했던 것과는 달리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트롬본이나 튜바 등의 저음 금관악기를 추가하여 음폭을 증가시켰다.

첼로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드보르자크가 이렇게 뛰어난 첼로 협주곡을 작곡하게 된 것은 아일랜드 태생의 미국 작곡가 겸 첼리스트였던 빅터 허버트(Victor Herbert)의 첼로 협주곡 2번을 듣게 된 계기도 있었다. 과거나 지금의 애호가들에게는 여러 모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1악장 Allegro

소나타 형식. b단조. 낮은 음역의 현악기 반주 위로 어두운 저음의 목관악기가 곡 전체의 기본이 되는 유명한 제1주제를 연주하고 밝게 빛나는 호른에 의하여 매우 아름답고 서정적인 부주제가 나타났다. 서서히 관현악만으로 고조된 후 첼로가 등장하여 이를 반복한다. 이후 여러 개의 주제가 차례로 나타나 전개된 후 재현부는 부주제로부터 시작되며 코다 부분에서는 B장조의 당당하고 웅장한 관현악으로 마무리된다.

*제2악장 Adagio ma non troppo

G장조 3부 형식. 1주제는 오보에와 바순의 부드러운 화음 위로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서정적인 선율이며 첼로가 이를 받아 음악을 발전시킨다. 중간부는 g단조로 전조되어 악상이 어둡게 바뀌는데 격렬한 투티로 시작하며 앞서 말한 요제파에 대한 추억에 드보르자크 자신의 가곡 선율이 이어진다. 3부는 카덴차 풍의 독주첼로가 주제를 변주하는데 점차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더해지며 짧은 코다에 의해 사라지듯 끝을 맺는다. 이국땅 아메리카에서 먼 고국에 대한 진한 향수를 전형적인 보헤미아적 악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독주첼로는 극히 서정적이다.

*제3악장 Allegro moderato

자유로운 론도 형식. b단조. 긴 F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 대의 호른에 의하여 단순하지만 장려한 주제가 제시되며 다른 악기로 옮겨져 발전하다 첼로에 의해 완전한 형태로 힘있게 연주된다. 격렬한 악상과 보헤미아적인 전원의 선율이 공존하며 곡의 마지막은 마치 숨을 고르듯 서서히 디미뉴엔도로 이어지다 론도 주제의 변형이 연주되며 활기차고 힘찬 결말을 맺는다.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Beethoven | Symphony No.5 Op.67

서양음악 고금을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곡 중 하나인 교향곡 5번은 대중적 인기는 물론이고 단 하나의 음표도 헛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상 유례가 없는 긴밀한 구성과 견고함, 통일감을 갖춘 완벽한 곡이다. 특히 5번은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뛰어 넘어 인간이 가진 희로애락의 감정까지도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한 치의 오차 없이 표현해내고 있다.

이 곡은 교향곡 3번이 완성되던 1803년에 구상되었으며 1804년에는 구체적인 스케치까지 그려넣었다. 1805년부터 1808년까지는 베토벤 창작 시기 중 중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작곡가의 명성이 더욱 확고해지며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창작력도 강렬해지는 시기로 오페라 <피델리오>의 첫 판본, <열정 소나타>, <피아노협주곡 4번>, <라주모프스키 현악사중주> 등 여러 주목할 만한 걸작들이 탄생하였지만 불행하게도 타인과의 대화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귓병이 악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베토벤은 다임 백작의 미망인으로 자신의 제자이기도 했던 요제피네 폰 다임(Josephine von Deym)과의 사랑이 무르익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5번과 같이 격정적이고 투쟁적인 곡은 잠시 중단되고 부드러운 곡을 작곡하는데 힘쓰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베토벤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도 할 수 있으며 1806년에 작곡된 <교향곡 4번>처럼 우아하고도 명량한 분위기의 곡들이 태어나게 된다. 이후 연애가 소강상태에 이르면서 다시 격렬한 곡들에 착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807년 작곡된 <코리올란>서곡에서는 영웅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며 이는 후일 베토벤의 음악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하여튼 1807년에야 <교향곡 5번>이 다시 작곡되기 시작하여 1808년 드디어 완성되었으며 그 해 12월 22일 빈의 연주회에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초연된다. 당시의 공연은 <교향곡 6번> c장조 미사 중 '글로리아', '상투스', '베네딕투스', 베토벤 자신의 피아노에 의한 <피아노협주곡 4번>, <합창 환상곡> 등이 연주되었는데 총 4시간에 이르는 거대한 공연이었다.

<교향곡 5번>은 '운명'이라는 부제가 더욱 익숙하기도 하지만 이는 주지하다시피 '영웅', '전원', '합창' 등과 같이 작곡자 자신이 직접 붙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악장의 동기에 대해 묻는 제자 쉰들러(Anton Schindler)에게 '이렇게 운명은 문을 두드린다'라고 한 베토벤의 자신의 말처럼 이 곡에는 귓병의 악화 등 젊은 시절 베토벤이 좌절과 슬픔, 갈등 등 운명을 극복하여 확고한 자

아를 확립하라는 승리와 성공의 환희가 열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여기에서 c단조라는 조성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베토벤이 폭풍우가 몰아치듯 격렬하고 영웅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 특히 선호하던 조성으로 개인적 의도는 물론 사회에 대한 비판적 감정까지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선택되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향곡 5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첫머리의 4개의 음표, 이른바 '운명의 동기(모티브)'로 베토벤은 선율보다는 이 운명의 동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곡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짧은-짧은-짧은-긴' 동기는 전 악장에 걸쳐 모습을 달리하며 나타나 곡을 일관성 있게 엮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비단 〈교향곡 5번〉뿐만 아니라 〈열정 소나타〉, 〈피아노협주곡 4번〉, 〈현악사중주 10번 하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베토벤이 여러 곡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베토벤은 〈교향곡 5번〉을 작곡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고뇌 끝에 얻은 승리와 환희에 비중을 두었다. 이에 따라 1악장 첫 동기는 3악장에서도 변형되어 살아나고 또 4악장 재현부 직전까지도 나타나 전 악장을 단단히 결속하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종악장의 '환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3악장 스케르초의 재현부를 자연스럽게 4악장과 연결하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2관 편성을 고수하는 1, 2, 3악장과 달리 4악장에서는 1대의 콘트라파곳, 3대의 트롬본 등 악기의 종류를 증가시킴으로써 폭넓은 음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교향곡 5번〉은 전악장이 유기적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곡의 진정한 의미와 매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악장부터 마지막 악장까지를 모두 경청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곡과 관련된 얘기 하나, 앞서 말했던 이 유명한 '운명의 동기'는 2차 대전당시 BBC의 라디오 뉴스의 시작 음악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승리(Victory)의 V가 모르스부호로 '...?', 즉 〈교향곡 5번〉의 '짧은-짧은-짧은-긴' 동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실로 절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 제1악장 Allegro con brio**

소나타 형식. c단조. 1주제는 앞서 설명한 4음으로 이루어진 '운명의 동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음악적 동기로 클래식 음악은 물론 다양한 장르에서 차용하여 사용 되어지고 있다.)에 이어지는 2주제는 호른으로 도입되어 바이올린이 부드럽게 연주되는데 호른에 의한 주제 역시 바로 '운명의 동기'이며 2주제를 반주하는 저음의 움직임도 역시 이 동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 동기는 고집스럽게 반복되고 중복되어 조직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이다. 시종일관 거의 1주제를 다루는 발전부에 이어 재현부로 들어가 잠시 오보에의 짧은 카덴차에 의해 긴장이 이완되기도 하며 제1주제에 의한 장대한 코다로 이어진다.

*** 제2악장 Andante con moto**

A°장조. 두 개의 주제를 사용한 변주곡이지만 각 변주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변주로 악상의 변화가 무척 절묘하다. 1악장의 격렬했던 투쟁 후 이어지는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악장이며 위안을 주는 듯 분위기가 부드럽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저음 유니즌으로 연주되는 1주제와 클라리넷, 파곳 등 목관에 의한 2주제가 나타나 차례로 변주가 연주되다 경과부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며, 다시 주제를 변주하다 마지막 코다로 이어져 부풀어 오르면서 악장은 마무리된다.

*** 제3악장 Allegro**

c단조의 스케르초(scherzo). 3부 형식.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에 의해 으스스한 1주제가 울리고 호른에 의해 '운명의 동기'가 변형되어 취급된다. 중간의 트리오가 대위법적으로 전개되면 다시 1주제가 나타난 후 조용해지다 팀파니의 악주와 함께 조심스럽고도 신비하게 고조되어 나가는데 점점 힘을 부풀려 폭발하는 것과 더불어 4악장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 제4악장 Allegro**

소나타 형식. C장조. 이 악장에는 오직 고뇌에서 환희로 이어지는 승리의 절정만이 존재하며 어둠을 뚫고 높이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한 악상이 전개되는 환상적인 악장이다. 금관에 의하여 제1주제가 f로 소리 높여 울려 퍼지며 바이올린에 의해 춤을 추는 듯한 C장조의 2주제로 이어진다. 일대 클라이맥스를 구축한 후 〈교향곡 9번〉의 마지막 악장처럼 3악장의 주제도 잠시 회상된 후, 마치 3악장에서 4악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처럼 서서히 분위기가 고양되다 금관의 폭발과 함께 1주제가 빛나게 연주되며 재현부가 연결된다. 최후의 코다는 지금까지 나타난 온갖 동기들이 조합되어 속도를 높이며 숨 막히게 고조되다 흥분의 절정 속에서 마무리를 고한다. 이 종악장의 거침없는 환희야말로 인류에게 실로 행복하기 그지없는 선물임이 분명할 것이다.

글 | 송진명 (음악칼럼니스트)



2008 아람누리

M a t i n e e c o n c e r t

미트시네 콘서트

8.28 III. 비발디에서 피아졸라까지, 세상의 모든 <사계> / 10.16 IV. 클래식과 함께 하는 가을의 서정과 낭만

II. 오페라 속의 사랑과 이별

PROGRAM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이상해.. 아, 그이인가!"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 "광란의 아리아"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외 다수

출연 오은경, 이아경, 김영환

지휘 최선용 해설 장일범 연주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08. 7. 17(목) 오전 11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주최 : 고양문화재단 후원 : 고양시

입장권 : 전석 1만5천원 입장연령 : 만 7세 이상 예매 : 고양문화재단 1577-7766 티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옥션티켓 1566-1369

고양문화재단 Staff

공연사업본부	본부장 강석홍
공연기획팀	팀장 백성현 유혁준, 김선기, 조연희, 박성원, 박정준, 황현경, 김지혜, 오석영, 최지원, 윤진경, 이강덕, 최성운, 안성현, 안태경
운영팀	팀장 박수용 신혁주, 김유성, 강지영, 박혜선, 기미형, 노정호, 이경임, 김소영
무대기술2팀	팀장 이영진 무대기술감독 조용한 · 무대감독 지성혜, 손영진, 김종암 · 조명감독 박정수, 김원영, 안운기, 박성수 음향감독 이재관, 김현정, 지상엽, 현시환 · 기계감독 김동욱, 한명동, 윤용국, 정기현, 정태환 · 장치감독 권용화

박근형 작·연출 2008 '청춘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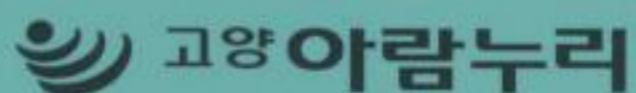
6. 20일 금 오후 8시 · 21일 토 오후 4시, 7시30분 · 22일 일 오후 4시
새라새극장

2008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II '오페라 속의 사랑과 이별'

7. 17일 목 오전 11시 아람음악당

정명훈 & 서울시립교향악단 (Vn. 프랑크 페터 침머만)

8. 13일 수 오후 8시 아람음악당



410-8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6 · 817 Tel. 1577-7766 www.artgy.or.kr
816, 817 Madu-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12, Korea